

## 제1회 이스탄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영감과 열정 가득했던 순간들



글 · 김동준(재봄음악평론가, 르쉐네음악원 교수)

삶에는 항상 예기치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예기치 않은 일이 새로운 문을 열어 주는 것을 느낄 때면 인생의 오묘한 진리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어떠한 목적을 지니고 힘겹게 도착한 곳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기대치 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딘가에는 우리를 지켜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장난기가 있는 조금은 짓궂은 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10년 넘게 사는 파리에서 이루고자 애썼고 기대했던 일이 전혀 다른 도시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아니 나에게조차도 조금은 소설처럼 느껴지는 이스탄불에서 2주가량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대략 1년 전 어느 날 프랑스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스테판 블레에게서 전화가 왔다.

“동준, 잘 지내? 조만간 이스탄불에서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열릴 텐데, 한국 심사위원으로 와 주지 않겠나?”

스테판과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나는 파리의 아카데미 뒤 디스크 리릭의 회원이고, 그는 부회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협회운영관계로도 종종 만나곤 했다. 내가 피아니스트이고 오케스트라 지휘자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내 연주를 듣거나 내 지휘를 보지는 않았다. 나는 비록 파리와 파리 근교에서 제법 많은 연주회를 했지만, 아직 단 한 장의 음반도 녹음하지 않은 상태이다. 스테판이나 다

른 심사위원들은 이미 수십장의 음반들을 녹음한 그야말로 내로라하는 피아니스트들이었다. 예를 들어 쉬에르페키넬도 터키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기로 되어있었다. 나는 솔직하게 내가 당신들 사이에 심사위원으로 초대될 자격이 있는지를 스테판에게 물었다. 전화 속의 목소리는 이렇게 답했다.

“너 무슨 열등감 있냐? 내가 심사위원장 자격으로 너를 초대하는 거야.”

나는 나 자신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수락했다. 파리와 파리 근교의 음악원 시험이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초대된 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초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감회는 남달랐다. 스테판은 콩쿠르 기간 전후로 연주회를 한 번 할 것도 제안했다. 나는 쟁쟁한 피아니스트들 사이에서 피아노 연주회를 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다. 나의 피아노 학업 과정은 결코 평탄한 것이 아니었고, 파리에서도 피아노 외에 음악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일을 하고 있기에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객관적이고 비판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가능하다면 지휘를 하겠다고 했다. 스테판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고, 피아노 독주회 대신에 이스탄불의 Orchestra' Sion을 지휘하기로 결정했다.

콩쿠르가 열리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면서 스테판 대신에 콩쿠르 주최 측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공항에 나가서 이스탄불 행 비